

# 민주, 제3자 변제·주69시간에 “망국적 배상” “과로사 강요”

### “국회 차원 강제동원 배상안 규탄 결의안 추진” “지금이라도 배상안 철회하고 원점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토록 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본에겐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들에는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국민들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이다.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나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의 해결책이란 궤변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지었다고 표현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다. 참으로 기가막힐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객관적 현실은 변함없다”며 “강제동원 배상안은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제물로 삼는, 국민의 자존심 저버리는 행위이다. 친일매국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사죄와 반성이 없건만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본 정부의 죄를 뒤집어쓴단 말이나”며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미래로 가는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 의견과 일본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 전제조건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임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 정권이 역사의 해석과 평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국민이 써내려가고 국민이 정권을 심판한다”며 “역사는 오늘의 사태를 제2의 경술국치인 ‘계묘국치’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고 경제효과를 자신한다고 했지만 이번 수출규제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 반경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도 전에 WTO 제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 측의 항후 자세를 지켜보겠다는 고자세로 나섰다. 이런 굴욕이 어디있냐”고 압박했다.

정부의 최대 주69시간 노동이 가능케 한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 대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시간 노동자를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과 사고율이 최고수준”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인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저녁시간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비진작도 가능하다. 워라벨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기업과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약을 국회에서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경제관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연인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의 주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현실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사항인데 국회와 사전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 협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의 실익은 노동시간 개약을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저녁시간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비진작도 가능하다. 워라벨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기업과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약을 국회에서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경제관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연인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의 주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현실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사항인데 국회와 사전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 협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의 실익은 노동시간 개약을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최이슬기자

## 서동욱 의장, 3·8세계여성의날 간담회 참석



서동욱 전남도의장이 7일 오후 전라남도의 회 회의실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전남도청 환경미화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중섭(더불어민주당·여수) 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여성 환경미화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뉴욕에서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시달리던 여성노동자들이 벌인 대규모의 시위로부터 유래됐다”며 “땀은 여성의 생존권을 지키는 여성의 참정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던 여성의 연대가 세상을 바꾸었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은 결국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된다”며 “더욱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에 항상 귀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빵과 장미로 상징되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참석자들에게 떡과 장미가 전달됐다.

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지속적 소통의 필요성과 건의사항에 대한 원활한 피드백 등 개선사항을 수렴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더미래 “이재명, 불신 해소·혁신 나서야”...사퇴론엔 선그어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더미래)’가 8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 사태 이후 당 내홍과 관련해 “당이 분열 위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더미래의 입장을 이 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3시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이날 “당 내 상황 및 향후 진로에 대한 입장문을 내 “우리는 민주당의 신뢰 회복, 혁신, 단결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표와 오는 15일 간담회

이어 “우린 단합된 힘으로 50억 클럽 특검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 정당,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강한 야당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독재 정권의 민주당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불신으로 당이 분열 위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린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의 단결을 위해 당 내 여러 의견 그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을 두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에서 당직

개편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최대 의원 모임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재명 사퇴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더미래 소속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할 얘기”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 입장을 공유하고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3월 15일 오후 3시 이 대표와 더좋은미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 측에서 제안한 일정이라고 한다.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논의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베트남에서 2박3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당 진로와 총선 등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유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